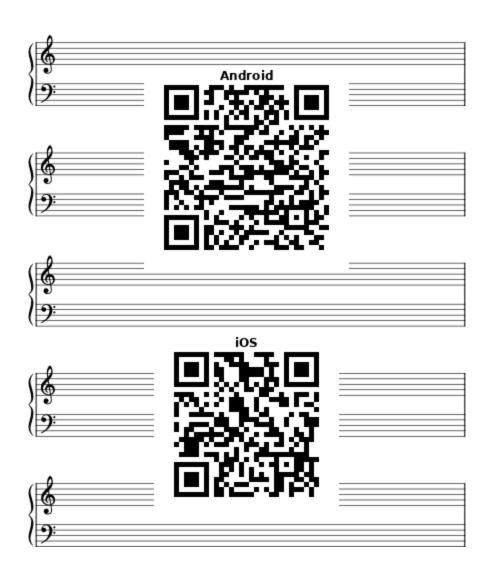


후안 클라리넷 피콜로



고전주의 포스트낭만주의